

장성 황룡시장 거리 '주정차 흠뻑제' 시행



장성군이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정체로 통행 어려움을 겪는 황룡시장 주진입로 일대에 대한 주정차 개선 방안을 내놴다.

장성군은 황룡시장 '뱃나드리로' 구간 중 현대대백방앗간-황룡마트 400m를 내년 1월부터 '주정차 흠뻑제 거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습 교통정체로 통행 어려움 겪는 400m 구간 내년 1월부터 시행 "주민들 적극적 참여 바라"

'주정차 흠뻑제 거리'는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흠뻑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차량이 도로 양쪽에 주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한다.

흠뻑제가 시행되면 흠뻑 날에는 왼쪽인 황룡우체국 방면에 주차하고, 짝수 날에는 오른쪽인 황룡하나로마트 방면에 차를 세워야 한다.

장성군은 올 연말까지 LED 정차 안

내등과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흠뻑제 거리 지정은 올 초 주민 설문 조사와 황룡시장 교통개선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보다 편리한 황룡시장 이용과 공동체 편의 증진을 위해 주정차 흠뻑제를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화순군 "남산공원 국화 동산 '관람 사전 예약제' 운영해요"

화순군이 오는 2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31일간 화순읍 남산공원 방문(관람)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군은 '2020 화순 국화향연' 전면 취소에도 불구하고 남산공원에 핀 국화꽃을 보러 오는 방문객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 예약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전 1회, 오후 3회 하루 총 4회 운영하며 관람 시간은 1시간이다.

관람 인원은 회당 최대 250명씩 총 1000명이다. 사전 예약은 '화순 남산공원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

의 특성상 대형버스를 이용한 단체 관람은 올해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화 축제가 취소돼 남산공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 시설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전 예약을 한 방문객은 남산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후 공원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정보는 '화순 남산공원 온라인 사전 예약 누리집'과 '화순군 축제 포털'(http://www.hwasun.go.kr/festival)에 접속해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군은 공원 주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 화순읍 인근 군민들은 도보로 이동해 관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산공원의 방역 관리를 위해 방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총 31일간 화순군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입장 가능

집(https://cf.hwasun.go.kr)에서 하면 된다. 예약은 20일부터 할 수 있다.

예약 전용 누리집에 예약자 본인 실명 확인 후 거주 지역(광역시, 방문 일자)과 시간, 방문자 수(예약자 포함 최대 4명)를 기재하면, 예약 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화순 군민은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화순 군민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 학생증만 지참하면 입장할 수 있다.

방문객은 사전 예약 확인, 발열 체크, 출입명부등록 작성 등 방역 절차를 거쳐야 입장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은 제한되며, 공원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사전 예약제

역 요원을 평일에는 20여 명, 주말에는 40여 명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국화향연 취소에 따라 재배 중인 국화 작품은 13개 읍·면에 분산 배치한다. 남산공원의 외부 관람객 방문을 최대한 줄이고 화순 군민들은 더 가까운 곳에서 국화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13개 읍·면 22곳에 국화 작품 40여 점을 전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마음에 위안을 드리고, 하루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했다"며 "군민과 관람객들이 국화 동산을 안전하게 관람하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생명사랑 약국 및 생명사랑실천가게 업무협약

곡성읍·3개 면 27개 업소 참여...현판식 진행

곡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민간업소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사랑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명 존중 문화 조성고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협약에는 곡성읍과 3개 면에서 27개 업소가 참여했다.

곡성군은 이날 지역 약국 12개소를 생명사랑약국으로, 농약판매업소 15개

소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협약을 통해 곡성군은 자살을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명사랑 약국 및 생명사랑 실천가게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민 정신건강 도움과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를 위해 협약업소들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의 통로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들 위해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협약을 맺은 생명사랑약국에 생명사랑 약봉투를 보급함으로써 사각지대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치료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생명사랑실천가게에서는 농약상자 및 농약병에 자살예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약물 및 농약의 올바른 사용법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필요 시 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윤현주 센터장은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음독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사랑 문화 정착, 자살률 감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혜영 기자

구례군, 여순 10·19사건 합동위령제 열려

여순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제72주년 여순 10·19사건 합동위령제'가 19일 구례군 현충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추모행사를 전라남도가 주최, 주관하여 첫 합동위령제로 개최하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의미를 가진다.

구례군 현충공원에서 진행된 이날 위령제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한중 전라남도 의회 의장,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문 구례군 의회 의장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위령제는 위령제, 추모식, 추모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순호 구례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이념의 대립과 갈등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유가족들을 위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올해는 故장한봉님께서 무죄판결을 받고,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와 같은 고무적인 일들이 많은 만큼 우리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위령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구술채록 조사를 통해 역사적 자료를 보관하고 희생자들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군,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 전체회의

지표 수정안 확정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도시 담양건설을 위한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난 1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17개 목표, 55개 세부목표, 71개 지표 수정안을 확정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수립하고 있는 담양 그린뉴딜 중기계획에 대해 추진배경을 설명하고 세부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4개 분과(자치기반, 경제기반, 사회기반, 생태기반) 3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2년 6월까지 담양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행정



계획, 개발 사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민간 대표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완 위원장은 "담양군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 SDGs 지표 개발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 생태도시 정책 선도 자치단체로서 자리를 선점한 만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위원회와 공직자 모두가 합심해 전국 최고의 지속가능 발전 모델을 완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 🚗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 🏠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 🧠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 👥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